

행복한 금요 편지

그대는 내 사랑

이요섭 수필가

이사하는 날이다. 포장이사 하시는 분들이 짐을 싸려고 집에 왔다.

"당신은 할 일이 없으니 사우나에 가서 쉬세요."라고 하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하긴 포장이사를 하니 나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간단하게 옷을 입고 사우나에 갔다. 2일 전에 사우나에 가서 쉬고 왔다. 그런데 오늘도 뜨거운 탕 안에서 하루를 쉬는 행운이 찾아왔다.

따끈한 탕 안에서 누워있으니 배가 허전한 것 같았다.

식당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었는데, 화장실 안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곳에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고구마를 먹고 있었다.

나는 그 장애인에게 여기서 식사를 하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애인의 모습에서 가난의 그림자가 내 가슴으로 밀려오면서 울컥 목이 매였다.

나는 그 장애인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유해 보았다. 그러나 그 장애인은 한사코 거부를 했다. 그래서 성난 것처럼 하고 함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나는 밥을 절반정도 먹고 있었는데, 그 장애인은 벌써 빈 그릇이었다. 아주머니에게 밥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건네주었더니 감사하다고 하며 맛있게 먹고 있었다. 더불어 나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청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소 도구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유년시절부터 어머니는 "좋은 친구와 사귀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장애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힘이 컸다.

그 여인은 장애인을 내 가족 내 형제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행여 장애인의 불행을 보면 자신의 불행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천사다. 나는 그런 사랑을 그 여인에게 배운 것을 모래알만큼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여인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

명학에 소울음이라는 화실이 있다. 그곳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구족화가들로 구성되어 생활하고 있다. 그곳에서 밥도 먹여주며 손발이 되어주며 생활했던 여인이다. 나는 그 여인을 정신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내 삶이 밝아짐을 확연히 느낀다.

성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처럼 현세대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남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과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

아내가 40호짜리 산수화 그림을 좋아한다. 그 그림은 천사 같은 그 여인이 선물해준 그림이다. 그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고 그 아래는 한복 입은 아내의 사진이 걸려있다. 아내는 가끔 그림을 선물해준 조그마한 그 여인이 한 번도 놀러오지 않는다고 하며 서운한 마음을 표출해보이기도 한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내 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녀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